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4월 14일 (제99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렴

계란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 되는 말이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았다가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누가 쳐서 떨어트리면 한꺼번에 다 깨지니 위험과 수익에 따라 분산투자하라는 것이다. 타당성 있는 말이다. 그러나 신앙은 이와 다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한 곳에 올인(All in)해야 한다. 왜냐? 신앙은 유일(Only)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호13:4),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20:3)고 하였고, 예수님도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신앙자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이어야 하고’(약1:8),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하고’(막12:30), ‘전심전력해야 하고’(딤후4:15),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고후6:14)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고 단언했고,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왕상18:21)며 갈광질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통 쳤다.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전적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기 위한 것이었다. 나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한 길을 달려 오늘에 이르렀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으로, 하나님이 이를 함당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마10:37~38). 가룟 유다가 계란을 두 바구니에 담으려다 망한 것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 우왕좌왕하는 신앙을 버려라. ‘오직 믿음’의 삶을 살자. 신앙은 많은 것 중 최고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을 찾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마6:24).

연장과 무기가 좋아야 능률 있게 일한다

이번 춘계산상집회를 준비하며 목사님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보였다. 세월은 막을 수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 그러나 주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목사님의 모습은 자못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그리고 연일 4, 5시간, 몸을 불사르며 모든 것을 쏟아 붓는 혼신의 열정으로 설교하셨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는 감동과 은혜였으리라.

먼저 목사님은 오직 한 길(One Way), 오직 예수(Only Jesus)가 가진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상급

문이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자는 마귀도, 귀신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마치 바윗돌에 불을 지르는 허망한 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다.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안수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마10:1), 70인의 제자가 그러했으며(눅10:17~20), 나아가 모든 믿는 자도 그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막16:17~18). 바로 이 능력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믿는 자의 카드, 곧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준 권세와 능력이건만 내 백성이 지식 없이 손에 총을 쥐고도 적 앞에 부들부들 떨며 종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



2019 춘계산상집회(4월 1일~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과 면류관임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가 순종임을 강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종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겐 악한 마귀도, 귀신도 어쩔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본업이기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고, 또한 목사님이 연일 몸을 불살라가며 외쳐대신 가르침이고 교훈이다.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믿는 자의 카드를 발급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나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나와 동일하게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병을 고치는 권세를, 아니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일 하라’(요14:12)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답한 일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총과 총알을 공급하니 모두가 성령을 받고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실전으로 보여 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루 3, 4시간 이상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연장과 무기를 받았으니,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간증하는 기쁨의 역사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한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5:29)



오직 믿음의 동반자는 순종뿐이다

기도원집회 중 상담시간에 어느 분이 제게 “목사님,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이해를 못해요?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는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고, 도끼가 찍는 자를 이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흠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인간의 이론이나 생각, 논리와 대립하고 마찰음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송장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해 그림자가 뒤로 가고, 어떻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어떻게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걸 아인슈타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 말 집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경수가 끝난 아내를 통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했더니 점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고 점차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또 한 번 큰일을 이루시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쥐꼬리만 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며(전5:2),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기 때문입니다(사55:8~9). 그래서 신앙의 자세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고후1:18)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순종’입니다. 믿음이 있

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곧 순

종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약2:26). ‘물을 떠다 줘라’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떠다 줘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토 달지 말고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게 됩니다. 중풍으로 입이 돌아갔어도 간증하라는 주의 종의 말에 단에서 간증했더니 입이 제대로 돌아왔다고 서울교회 염상섭 장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나아만 장군처럼 굽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엘리사의 말에 화를 냅니다. ‘이래봐도 내가 한 나라의 일등공신이야 장군인데, 내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나를 거면 수질이 좋은 다메섹 강에 들어가지 무슨 요단강물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 종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낮는다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냐’고 나아만에게 아웁니다. 종의 말에 나아만은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했더니 고름이 줄줄 흐르던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왕하5:13~14).

자고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변명과 핑계로 말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습

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아 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

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삼상15:20~21). 이 말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니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죽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도 드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울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이고 돌아와야 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요11:39)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

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라하면 하고, 하지 말라하면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라하면 가고, 가지 말라하면 안 가는 게 순종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리더니 사도로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라는 말씀이 있고, ‘애통하는 위로를 받는다’(마5:4)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울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울면 다 되게?’ 하면서 따질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애통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자들이 많습니다. 한나의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담은 태의 문을 열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삼상1:10).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으리라는 예언을 듣게 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앉아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사38:14).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위로하사 수환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절전 지역에서 죽인 일을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통곡했습니다(시6:6).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있었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행13:22)가 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눅7:13~14).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러니 애통하며 기도하여 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 말고, 먼저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삼상15:22).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훈련된 반응

워런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인 찰리 멩거는 “투자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진실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생각하고자 애쓴 의지의 투자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심리적인 실수를 피하는 능력은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똑똑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던가요?

평범한 사람이 시장지수보다 더 높은 차익을 보고 싶다면, 벤 그레이엄이 개발하고 멩거가 실천에 옮긴 ‘가치투자’가 답입니다. 실행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장지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감정적, 정신적 컨트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한 것이지요.

가치투자의 기본 원칙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개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그에 비례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라. 둘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내재가치와 비교했을 때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라. 셋째,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부침이 심한 시장을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넷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이 돼라.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얼마 전,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주나 걸리는 공공기관의 개인 심사를 마치고 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매일 같이 부동산을 내 집 드나들 듯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가 기도한 집은...’, 그림 그리듯 기도한 내용을 떠올리며 찾기를 며칠, 힘들게 꿰찬 한 집을 찾아 서류를 넣고는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틀이 지나서 전화가 왔다. 집 소유주가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아뵤싸,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히려 맘이 기쁘고 시원했고, 하나님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 ‘믿음은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를 통해 확답을 주셨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서류를 놓아야 하는 마감일 당일에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찾았다. 기도한 대로 집안 인테리어와 자재, 채광과 바깥 자연환경을 비롯해서 층수, 하다못해 전등 소재와 장식, 스위치 하나까지. 분명 몇 달 전에 한번 봤던 집인데 그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집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알고 보니 소유주가 바뀌면서 가격은 그대로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이

가치투자 시스템이란 정말 이토록 단순한 것입니다. 멩거는 “성공적인 투자자는 복잡함은 항상 배제하고 단순함과 명료함에 집중하면서 ‘학습 기계’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우고 또 배우야 한다는 말은 결국 투자자란 끊임없이 읽고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멩거는 “탐욕스럽게 읽어대지 않고서 성공한 투자자를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독서하고 배우고 난 후에는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멩거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훈련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형편없는 의사결정으로 이끄는 특유의 행동을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우야 하고,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투자를 이해하지 못해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잡음들을 피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빌4:9).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삶 속에 최대의 가치 있는 투자는 배움이며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도 역시 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택했으면 반복하여 배우고 행하면 우리도 그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배우고 움직이며 기도해야 내 영·혼·육이 녹슬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기도는 특권이다

3, 4월 달력을 펼치니 액자에 담긴 목사님의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온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잉태케 하셨다.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다.

목사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요(사62:6~7),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삼상12:23). 또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로써 하늘 문을 여닫는 기적을 일으켰으

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즉 엘리야나 목사님이나 기도로써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권면하시는 것이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는데 잡을 수 없었다. 토끼보다 빠른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뛰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 뛰기 때문이다.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가?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부르짖는 나에게 응답하시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며(렘33:3),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눅18:7)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영적 진공상태는 위험하다!

기도원 집회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보약을 든든히 채워 넣고 돌아온다. 온갖 낙심과 공허한 마음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과 결단의 시간이 된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집중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어두움이 잠입할 겨를이 없다.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상태는 혼돈과 어두움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공허, 어두움을 빛으로 채우셨다. 그 빛은 참 빛이라 생명을 주고 어두움을 물리치며 진공상태를 채우신다. 불교에서는 비움을 강조한다. 모든 정욕을 비워내는 ‘무(無)’의 상태를 강조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비움(빌2:7)은 공허한 무의 상태가 아니라 낮추심이고 겸손이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릇된 결정을 하기 쉽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성령 없이 온전한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롬3:10),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고(마15:11,18), 그 어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렘17:9)이라 하신다. 이렇게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된 부패성은 내어버려두면 들수록 점점 더 부패되기 마련이다. 마음을 비우고 공허한 상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런 영적인 진공상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경고하신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 공허한 상태를 재점령해 버린다(마12:43~45).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 없이 공허한 상태로 비워둔다는 것은 귀신들이 역사할 장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비워서 될 일이 아니라 채워야 될 일이다. 성령으로, 그것도 ‘충만히!’ 채워야 한다.

잔치 뒤에 도둑이 든다고, 기도원 집회 후에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원집회 마지막 날에 항상 귀신을 제압할 권세와 무기로 무장시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그 이유 아니겠는가?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유튜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유튜브 방송을 보고 타 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매일 교회 위치와 예배안내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왜 이초석 목사님이 이단인지 모르겠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시던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니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또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남을 깨닫는다.

이번 기도원집회를 앞두고 더욱 많은 문의가 잇달았다. 이번 집회에 타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중 교회의 메일을 통해 들어온 기도원 집회 참석 후기를 옮겼다. 다만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둔다.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오지 못할 환경이었다. 내가 시무하는 교회가 휴가철도 아니어서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는데 기도하면서 행정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 “4월 2일 화요일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빠를 보고 왔으면 합니다.” 행정목사님이 담임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하셨는데, 잠시 후 행정목사님이 오셔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을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은 세미나가 있어서 화요일에 아는 언니랑 함께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 갔다.

아는 언니는 휴가가 하루만 되어서 오후 집회를 참석하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자 나 혼자 남기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같이 장성역에 나왔다가 갑자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언니 혼자 서울로 보내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밤 집회는 너무, 너무 황홀했다. 찬양시간도 은혜로웠는데 기도시간이 되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시작 전 준비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이고 내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순간, 순간 기쁨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감사해서 많이 울었다.

그런데 이초석 목사님이 설교 중 ‘부교역자가 사역하면서 자기 이름 내지 말고, 당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30대 초반에 시무하던 모 교회가 생각났다. 초대 목사님 뒤에 가려서 말씀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말씀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후임 목사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다. 도와드리지 못한 죄, 생각지도 못한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 감사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이초석 목사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순간, ‘아~ 내가 보았던 이초석 목사님이 저렇게 크시고 깊이하시고 심지어는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였다니...’ 활짝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사람들 안에 있는 병과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가히 내 눈에는 장관이었다. 그 어떤 엄청난 자연이나 혹은 아마존의 폭포보다 더 큰 힘이었고 장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저분처럼 저렇게 하셨겠지?’ 땀을 닦으며 축하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 나왔다.

‘나도 저렇게 사역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사역해야지.’ 감동이 너무 밀려왔고 마음의 기쁨과 동시에 눈물이 너무 나와서 많이 울었다.

집회가 다 끝나고 혼자 성전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과 감사에 많이 울었다. 집회를 참س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능력 있는 종, 제대로 목회 사역을 하려면 목사님을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역시, 능력의 종, 불의 종, 이 시대 최고의 종을 만나 뵈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신약시대 성경의 능력의 현상이 오늘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를 붙잡아야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목회에서 최고의 주의 종 목사님을 붙잡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저녁예배에서 귀신론이 확 풀리고 확실히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현장, 목사님 곁에 가까이 붙어있었던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몸이 부서져라 애쓰시는 모습에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몇 마디로 어떻게 받은 감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큰 스승으로 잘 모시고 배워서 이 시대의 제대로 된 주님의 증거자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본 대구교회 한송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심경을 피력했다.

《충격, 충격!1988년 11월 5일, 부산 사직체육관집회 때 우리 부부와 경북대 총장이었던 아버지가 받은 충격 같은 충격을 그분들도 받았을 겁니다. 그분들도 큰 제자가 될 겁니다. 이번 집회는 부산집회 때보다 더 강력했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하면서 목사님의 영혼 사랑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 받는 종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신들메도 감당할 수 없는 종들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함은 본받자고 했습니다. 이 받은 은혜 깊이 간직하고 열매를 맺어야겠죠.》

하늘이 열어놓은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 예수중심교회가 다시 불 일 듯 일어나 지역을, 이 나라를, 나아가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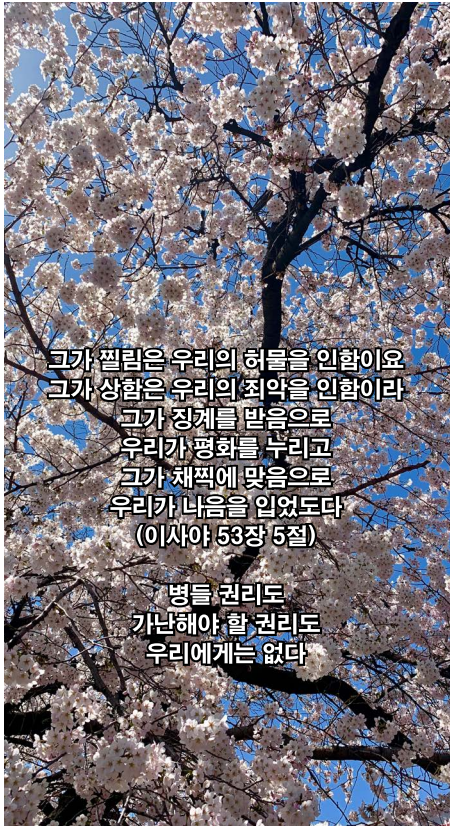
온유함의 도구 ‘실패’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12:3). 그러나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때려죽이고(출2:12)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혈기왕성한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생마가 힘은 좋지요. 그러나 힘이 좋다고 그 힘만 보고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만들어갑시다. 바로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 변화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고, 입이 둔한 자로서 순종을 배워 주인의 뜻에 잘 길들여진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파스한 햇볕이 같은 시간에 진흙과 얼음 위에 내리칩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햇빛을 받은 진흙은 굳어갈 때, 얼음은 물이 되어 녹아내립니다. 같은 은혜 안에서, 같은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 녹는데, 누군가는 더 강박해집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께 성공만을 보장받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함께 고난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모든 사람이 거치는 필수코스입니다. 어차피 모두가 거치는 과정이라면 좌절 속에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과 순종을 배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결국 그 실패들은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해답을 찾아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크고 넓어져 그게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그가 췌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병들 권리도
기난해야 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

해서 안 되는 말 10가지

:: From internet ::

- 1. “잘 해봐라.”- 비꼬는 말
- 2. “난 모르겠다.”- 책임 없는 말
- 3. “그건 해도 안된다.”- 소극적인 말
- 4. “네가 뭘 아느냐.”- 무시하는 말
- 5. “바빠서 못한다.”- 핑계의 말
- 6.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뭐하려고 바꾸느냐.”- 안일한 말
- 7. “이 정도면 괜찮다.”- 타협의 말
- 8.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 9.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
- 10. “이제 그만 두자.”- 의지를 꺾는 말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위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뿌

리가 썩은 나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생각이 뿌리일진대 생각이 썩은 자에게 기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23:7),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렘6:19).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의 네 친구들을 불까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메고 온 그들의 우정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생각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만 두자’라든가, ‘못하겠다’라든가 ‘다음에 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다 놓자’라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했기에 지붕을 뚫어 친구를 달아 내리는 지혜가 발휘된 것입니다.

말이 씨입니다. 씨는 작정하고 뿌려도 나고 실수로 뿌려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무씨를 뿌리면 무가 나고,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날 리 있겠습니까?

위의 10가지 말은 하지 맙시다. 그 씨가 날까 두렵습시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15:11).

예수중심편집실